

# 朴木月の 詩와 의로움

申 . 東 旭\*

## 1. 그의 작품에 관한 諸家들의 見解

박목월의 시에 가해진 여러 評價와 연구들을 간추리면 대충 다음과 같다. 1940년 9월호의 文章誌에서 박목월의 작품을 선한 정지용은 “북에는 김소월이 있었거니 남에 박목월이가 날만하다. 소월의 툭툭 불거지는 삭주 구성조는 지금 읽어도 좋더니, 목월이 못지않어 아기자기 섬세한 맛이 좋다. 민요풍에서 시에 진전하기 까지 목월의 고심이 더 크다. 소월이 천재적이요 독창적이었던 것이 신경 감각 묘사까지 미치기에는 너무도 “민요”에 시종하고 말았더니 목월이 요적 대상연습에서 시까지의 콤포지순에는 요가 머뭇거리고 있다. 요적 수사를 다분히 정리하고 나면 목월의 시가 비로서 조선시다”와 같이 언급하여 박목월의 시의 특질을 간략하나 잘 말해주고 있다.

金東里는 “自然의 發見”<sup>1)</sup>이라는 글에서 박목월의 초기 작품들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鄉土性에 시적특성이 있다고 했다. 그가 구체적 심상을 자원에서 구한 대신에 “특이성에 사로잡혀서 자연의 일반적 보편적 성격과 거리를 멀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김동리는 “복월시의 비밀과 강점”<sup>2)</sup>에서 목월의 순결하고 아름다웠던 사랑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의 심성의 아름다움을 지적했고, 그의 애국심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누구나 일반적으로 민족애를 가질수 있으나, “질은 애국심이랄까 민족혼이랄까 그런것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물론 그당시 경주 일원에 있던 우리 또래 젊은 문학동인들이 모두 내 백씨(법부선생)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러한 계기도 있었겠지만 그의 경우에는 좀 더 기질적으로 타고났던 것으로 보고 싶다.”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같은 글에서 김동

\* 高麗大 教授(國文學專攻)

1) 金東里, 자연의 발견. 문학과 인간. 백민문화사. 1948.

2) 現代文學. 1978 6월호. 참조.

리는 靑鹿集 시대의 박목월의 시에 대하여, 시정은 향토적 애수이고, 민요풍의 자연 시인이라는 뜻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특히 박목월이 김소월의 시에 心醉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徐廷柱는 김소월의 북방적 정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박목월의 남방적 정서를 의식한 것같은 말을 하고 있다. 사물에 구애되지 않는 초연한 삶의 자세로서의 풍류정신을 남방적 정서와 관련지우고 있다.<sup>3)</sup> “나그네”같은 작품에 대하여 “신라적 풍류인격”을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인격성은 고려조나, 조선조 시대의 인물과는, 또 서양적교양을 가진 근대인의 그것과도 다른 신라적 인격성이라고 보고 있다.

趙芝薰은 “구전동요와 구전민요의 전통을 그의 고향 경주의 풍토에서 현대의 지성으로 육종한것이 바로 목월의 초기시의 세계였다.”<sup>4)</sup>고 지적했다.

金宗吉은 “난·기타”라는 작품집이 나온 무렵의 박목월과의 대담에서 박목월의 시세계의 변모에 대하여 자연으로부터 인간사에 관심을 옮기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下楫”같은 작품은 대가의 작품이라고, 지적했다.<sup>5)</sup> 초기 작품의 시세계는 동양적 자연을 노래했고, “난·기타”에서는 현실을, “경상도의 가랑잎”과 “사력질”에서는 존재의 운명과 죽음의식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연구와 비평들이 가해졌으나 일일이 제시하기 보다는 작품론에 관계된 부분에서 언급하려고 한다.

## 2. 작품의 美的 價値

김동리의 견해에 따르면 박목월의 詩作을 전반적으로 크게 구분할 경우 3단계의 구분과 5단계의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sup>6)</sup> 필자는 3단계의 구분을 따라 작품의 가치 또는 그 아름다움을 알아 보려고 한다.

### 가) 靑鹿集과 山桃花

金春洙는 박목월의 7.5조의 율격이 김소월의 민요풍의 작품과 연결되고

3) 徐廷柱. 현대 조선명시선. 운문사간. 1950. 및 한국의 현대시. 일지사. 1969. 참조.

4) 趙芝薰. 산도화. 발문. 1955.

5) 金宗吉. 시론. 탐구당. 1965.

6) 金東里. 현대문학. 1978. 6월호 참조.

있음을 지적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律調의 흐름이 있는것으로 볼수 있으나, 박목월의 율격에 관한 미의식은 독특한 일면이 있는 것같이 보인다. 초기 작품중에서도 비교적 특성있는 작품으로 보이는 “길처럼”이나, 또는 “가을 어스름” 그리고 “연꽃”의 운율 구조는 7.5조로 보기는 어렵다. 7.5조로 볼수있는 것들은 “운사월”, “삼월”, “청노루”같은 계열의 작품들이지만 그것도 섬세하고 精緻한 의미와의 융합을 피하는 변조(變調)에 의하여 새롭게 조정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운사월”에서도 “산적이 외판집/눈 먼 처녀사//문설주에 귀 대이고/엿듣고 있다”는 자수율로 분해하여 인식되기보다는 2음보의 율조로 받아들여지며, 눈 먼 처녀를 설정하여 바깥 세계의 아름다움과 서정적 주체로서의 처녀의 감감함과 의로움이 독자의 의식 앞에 나타나게 했다. 2음보의 단조로운 반복은 이 작품의 단조로움의 미적 특질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화창한 봄을 밝은 마음으로 만끽할수 없는 서정적 주인공이 눈먼 처녀로 설정된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인물의 설정은 박목월 자신의 시대인식의 한 형상적 일면으로도 이해할수 있다. 깊은 산속에 사는 인물의 막힌 상태는 시인의 시골 생활의 일면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듯하고, 눈 먼 상태는 세계에로 떨어가는 擴散的 自我가 아니라 내면세계에 갇혀있는 閉鎖的 自我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일제말기의 젊은 시인으로서 느끼고 부딪치고 했었을 시대의 벽을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다고 보기때문이다.

맑고 청순한 것들의 세계에 향한 시인의 지향도 흔히 일컬어 왔듯이 자연에 의탁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시대의 막힘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서 내면의 형상화를 위하여 자연에 傾倒됨을 이해할 수 있겠다. “청노루/맑은 눈에//도는/구름”과 같은 시상에서보이듯이 세계의 막힘과 감감함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새로운 지향은 구름상징에 의하여 자연스럽고 또 필연적인 요청에 의한 시의 형상화로 말할수 있다고 생각했다. 박목월은 그가 좋아한 시인을 말하는데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7) 金春洙. 한국 현대시 형태론. 해동문화사. 참조. 1959.

“나는 향수로 말미암아 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이렇게 시에 대해서 눈을 뜨게된 사실이 나로 하여금 평생 향수가 나의 정신의 바탕이 되게하는 동시에 내 작품에 깊은 정서가 어리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햇세의 작품을 읽고, 그 구름의 정력의 세계를 발견한 후로 한결 향수라는 것이 인간의 얼마나 깊은 정신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내게는 모든 아름다움이나, 진리나, 그 진리를 갈구하는 정신이 모조리 나직하고 조용히 숙여진 향수의 애달픈 모습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치게됨은, 어릴적의 이 애잔한 “향수”로 말미암은 것이러니 하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이다. 그 무렵에 가장 애송한 시가 베르레에스의 “가을날 비오름의 애달픈 흐느낌, 내 간장을 꿰느니...”<sup>8)</sup>

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서, 그의 그리움의 정신지향이 구름의 미학을 통해서 나올만한 이유를 짐작할수 있을 것 같다. 청노루의 맑은 눈에 도는 구름은, 번잡하고 뜻에 맞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어쓰는 자만이 추구하고 위안을 받을만한 정신 세계로에의 지향을 뜻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자유와 순결함의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시인은 5연의 율격을 2음절 1음보를 한번 되풀이하여 매듭짓고 있는데, 그 간결성과 시상의 생략적 수법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독자의 상상적 참여를 높이는듯이 보인다.

이와같은 구름의 주제는 “나그네”같은 작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구름에 달 가듯이/가는 나그네”를 되풀이하여 음악적 효과를 높이는 한편, 靜적인미를 넘치지 풍기게 하였다. 이와같은 고요와 천상적인 심상의 제시에서, 일제시대의 요란하고 야비했던 군국주의적 삶의 방식에 대립하는 정신주의의 한 양식을 느낄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술 익는 마을 마다/타는 저녁불”에서는 평화로운 한국의 재래적 삶의 정서가 심분 풍기게 하고있다.

“가을 어스름”같은 작품에 보이는 농촌의 풍경도 시골 사람들의 순박한 모습을 다루어 시인의 내면풍토를 보여주는 듯이 보인다. “연륜”에서는 한 처녀와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 정열의 소용돌이나 매혹적인 여인의 심상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과 함께 정신적으로 승화된 그리움을 볼 수 있다. “...먼 수풀 짙고운 나무에는 상기 가느른 가느른 피빛 연륜이 감

8) 박목월, 보라빛 소묘, 신흥출판사, 5면 인용, 1958.

긴다.”와 같이 승화된 아름다움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때 채택된 나무는 생명 상징의 뜻과 함께 非動物的인 순연함을 굳이 나타내려는 의도였음을 쉽게 사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산이 날 에워싸고”에 보이는 시상도 현실에 과감히 도전해 가는 삶의 자세를 보이기 보다는 주어진 삶의 조건에 순응해 가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산그늘”에서도 “젊음도 안타까움도/흐르는 꿈이다/애달픔처럼 애달픔처럼 아득히/상기 산그늘은 내려간다”와 같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소극적인 자세는 내면적인 자기 확립의 필요한 자세였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55년 12월에 간행된 “山桃花”에 수록된 여러 편의 작품들에서도 경주 근처의 향리일대를 시적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는 변동이 없다. 이 무렵의 작품에 대해 “답백한수채화”<sup>9)</sup>라고 언급할 정도로 정적인 서정을 보여준바 있다. 이러한 자연을 주제로한 작품들을 인간과 절연된 상태에서 순수 자연을 탐구했다고 보는 견해<sup>10)</sup>도 있다. 또 정태용 같은 비평가의 글에서는 “서술어가 거의 생략된 이시는 물체만 보여주었을뿐, 그것이 이별게 아름다운 가는 알 수가 없다”<sup>11)</sup>와 같이 부정적 언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스스로 견디면서도 그의 시는 독자적인 정서적 공감대를 지닌 미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연구가나 비평가들의 해석적 설득을 초월하는 보다 더 고차적인 조화의 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작품 “산도화” 1에 보이는 시상은 맑고 깨끗한 자연을 제시하면서, 이른 봄의 자연이 지닌 生成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청정한 세계에의 지향은 청록집의 경향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한 시인의 창조적 발전과정을 분명히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작품에 보이는 음조의 아름다움은, 1연에서 “산”의 되풀이와 2연에서의 산의 연결, 그리고 “송”의 되풀이가 이루는 부드러운 효과이다. 율격은 1음보, 1음보, 2음보의 연속이고, 3연에서 2음보, 1음보, 1음보의 변격을 보이면서 “ㄴ”음의 연속을 이어가게 했다. 제4연에서 다시 율조는 1,2연의 형식으로 돌아오면서 변조를 원형으로 수습하게되며, 되풀이하여 “ㄴ”음과 “ㄷ”음을 음조로하는 流韻의 譜

9) 文德守. 박목월론. 1965.6. 호문학춘추 참조.

10) 吳世榮. 자연의 발견과 그 종교적 지향. 1978.5호. 한국문학.

11) 鄭泰鎔. 박목월론. 19705호. 현대문학.

調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이루어 놓았다. 이러한 시의 聲調의 완벽한 해조는 “청산별곡”과 같은 작품에서나 발견하게 된다. 이 한편의 작품만으로서도 그의 초기 시가 지닌 미적 가치는 충분히 인정되기도 남을 것 같다.

동양에 있어서의 山川을 題材로 하는 시 창조는 전통은 유구한 것이지만 박목월만큼 孤高한 경지에 이른 예는 그리 흔치 않을 것 같다. “산도화”<sup>1)</sup> 한편이 보이는 산수의 미는 실상은 서정적 주인공의 마음의 풍경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시대의 어려움에 부대졌을 시인이, 그것들을 승화하고 내심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와같은 정신적 귀의처가 있었기에 가능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귀의처는 이 시인이 나중에 훨씬 그 냉엄한 본질을 깨달으면서 보다 심화된 형이상적 주제로 승화시키는 작품을 만드는 경지를 전개했던 것이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의 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음은 분명히 이해하게 한다.

자연이 제공하는 아름다움은 그것이 영원함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우기 때문인 듯하다. 그것은 항상 엄연한 존재이고, 또 변함없는 자세로 군림하며, 그리고 거대한 원리적인 힘으로 인식되게하며 영원한 조화의 주인으로 인식되는 가장 큰 대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 나) 關・其他와 晴臺

일제치하의 어두운 시대에 박목월은 자연을 통하여 마음의 안식처를 구했지만, 그것만으로 내면적 갈등이 채워질 수는 없었던 듯하다. 그러기에 “임에게”와 같은 작품을 통하여 시인의 그리움이 번져나간듯이 보인다. 슬픔의 의미는 삶의 본질적인 한 측면인 것을 그리움이나 향수와같은 정서로 나타낸 듯하다. 김동리의 슬회에서와 같이 이를 수 없었던 사랑의 이야기도 슬픔의 정서로 나타났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난・기타”와 “청담”의 시집에는 현실적인 삶의 애환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가령 “唐人里 近處”에 보이는 시상은 뚜렷하게 삶의 현장을 다룬 시상이 펼쳐지고 있다.

唐人里 변두리에  
티를 마련할까보아.

나이는 들고...

한 4.5百坪(돈이 얼마네)

집이야 움막인들.

그야 그렇지. 집이 뭐 대순가.

아쉬운 것은 흙

五穀이 여롭하는.

이 작품이 말하듯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봉착한 한 서정적 주인공을 독자들은 만난 셈이다. 이시기는 1950년의 6.25전쟁을 겪으면서 민족 전체가 어려움에 처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某日”같은 작품에 제시된 서정적 주인공은 시인 자신임을 일깨우기에 충분한 바있다. “시인이라는 말은/내 성명위에 늘 붙는 관사/이 낡은 모자를 쓰고/나는/비오는 거리로 헤매었다./이것은 전신을 가리기에는/너무나 어쭙잖은 것/또한 나만 쳐다보는/어린것들을 덮기에도/너무나 어치구니 없는 것/허나, 인간이/평생 마른웃만 입을 가부냐 다만 두발이 젖지않는/그것만으로/나는 고맙고 눈물겹다/”

이 작품만큼 우리 시대의 시인의 경제적 삶의 모습을 적절하게 말해주는 작품은 별로 있을 것같지 않다. 그러나 시인의 사명을 내심으로 깨달은 심도 있는 호소가 천박하지 않게 또 설득력이 있게 표명되어 있다. 소년기에 싹 났었던 향수의 미학은 이제 현실에서 밀려오는 삶의 문제에 봉착함으로써 의로움과 씩씩한 냉엄을 체험하기에 이른다고 말할수 있겠다. 그러나 이시인의 시적 준엄성은 무절제한 정서의 유출이나 감상의 노예가 됨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시기의 시인은 삶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한정된 삶의 시간의식이 현저하게 주제화 되고있다.

閑庭

저 구름의

그윽한 崩壞를

멜로디만 꺼지는 온온한 휘나레.

앞으로

내 달은

영원한 閑日.

주름살이 곱게 밀리는 조용한 하루.

마른 菊花 대궁이가 고누는 하늘로

구름이 달린다. 毛髮이 消滅하는  
 구름이 달린다. 鬚을 말며  
 마흔과 쉰 사이의 나의 하늘아래  
 가늘게 흔들리는 뜰이여. (이하 생략)

이 작품에 나타난 꿈의 崩壞는 한 서정적 주인공의 죽음의식이자 삶이 끝내는 붕락하고야 말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을 알려준다고 하겠다. “구름의 붕괴”와 같은 인식의 이면에는 높고도 높은 지극히 아름다운 꿈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헛되히 허물어진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깊은 체념을 일깨운다고 하겠다. 우리의 삶이 비릇된 시간과 그 끝남의 엄숙한 시간을 깨닫는 시상으로 보인다. 실상 공감의 깊이라는 것도 보편성의 폭과 각성의 깊이에 있다고 하겠다. “하관”같은 작품은 인간적인 체험중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아픈것을 말한 작품으로서 그 창조적 격조가 일층 심화된 脫俗的 경지에 이르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하는 작품이다. 별세한 아우가 생전에 부르던 환상을 도입하여 “오오나.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다./그래도 그는 못들었으리라.”에 보인 사랑의 의식은 너무나 인간적인 그 이상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지극한 정성이 담긴 시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인은 이시기의 작품에서부터 분명히 우주적 질서의 냉혹함을 깨닫기 시작한 듯하다.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스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소리 들리는데  
 내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이와같은 시상에 보이는 삶과 죽음의 통찰은 놀라운 감성적 통합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음을 용이히 발견할 수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절감한 표현의 아름다움을 “열매가 떨어지면 툭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감각적인 각성은 金宗吉의 말과같이 가위 대가의 경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아우의 죽음을 통하여 시인은 죽음 일반의 감각적 내지는 철학적 각성까지를 통



찰해내고 있다. 헛세와 릴케의 사색적 시상을 좋아한 그의 시에는 전체적으로 있음의 의로움에 특히 민감했던 것 같다.

그의 다른 작품 “寂莫한 食慾”같은 데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은은하게 서로 사랑하며 어여삐여기며/그렇게 이웃끼리/이세상을 전느고/저승을 갈 때.”와 같은 사랑과 쓸쓸함과 죽음의식이 복합되어 나타내고 있다. 가령 “먼 사람에게”와 같은 시상에서 다음 길없이 먼 위치에 있는 절대자애의 그리움은 한 존재의 운명적인 슬픔과 연결되고 있는 듯이 생각된다. 그리움과 슬픔의 이중적 정서는 보이지않는 절대자애의 지향을 나타내는데 있어 불가피한 정서적 대응이라고 생각된다.

당신을  
부르는  
내손 끝에  
日月의 순조로운 循環 .  
아아  
軟한 채찍처럼  
채찍이 운다.  
먼 사람아.

이작품에서 분명히 개체적 존재의 다함 없는 恨과 “日月의 순조로운 循環”으로 압유된 절대자와의 영원성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면서, “연한 채찍”의 운명적 귀속을 질감하는 시간의식에서 야기된 슬픔의 미학이 성숙되고 있다. 박목월의 시중에서 아마도 사랑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을듯이 보이며 그 사랑은 필시 기독교적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의 자연도 크게는 사랑의식에 포용되는 대상이 되는 듯하다.

시집 “臍蠶”에 수록된 많은 작품들에서도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한편 고통과 공허함과 죽음의식이 내면화되어 나타난다. “家庭”에 보인 연민의 정은 다소간은 감상화된채로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국면을 적절하게 사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랫목에 모인  
아홉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19문 반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슬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또 “밤상 앞에서”에 보인, 어린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약속의 표시에 나타  
 난 벌린 관의 공허함과 사랑과 외로움의 의식은 우리의 일상적 생활에 번져  
 있는 아름다움의 인식이자 동시에 슬픔의 覺醒이기도 하다. 그의 인식 체계  
 에 자리잡은 사물에 대한 표면과 이면의 동시적인 의미포착은 후기에 올수  
 록 심화되는 것 같다. “나무”에서도 나무라는 단순하고도 평범한 소재를 통  
 하여 삶의 본질을 해명하고 있지만, “수도 승일까. 목중하게 서 있었다.”  
 나, “하늘문을 지키는 과수병일까, 외로와 보였다.” 나,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안에 뿌리를 피고 있었다. 목중한 그들의, 킁술한 그들의, 아아 고  
 독한 모습. 그후로 나는 뽑아 낼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와 같은 의인화된 나무를 통하여 시인의 내심의 풍경을 형상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이와같은 시적형상화는 평범한듯이 보이면서도, 성숙한 인격성과  
 깊은 통찰에 의하여서만 얻어지는 삶의 한 경지인 듯이 보인다. 이 작품은  
 나아가서 외롭게 서 있는 존재일반에 대하여 지닌 시인의 사랑과 연민의 정  
 이 온전히 풍기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서정적 자아가 확장되어가는 對  
 世界에 대한 충일을 이작품은 알게 해준다. 이와같은 서정의 확대현상은 후  
 기의 작품군에서 자주 발견되는 터이다. “對岸”에서도 어둠속에서 비를 맞  
 고 서있는 의인화된 가을의 쓸쓸한 나무가 제시되고 있다. “우회로”, “전  
 신”, “회귀선” 등의 작품들에서도 각각 삶의 어두운 측면들이 문제되고 있다.

#### 다) 경상도의 가랑잎과 砂礫質

박목월의 작품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부정적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인데  
 그의 시적발상이 현실에 근거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적 정당성이나 진실

위에 서있지 못하고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삶이 포용하고 있는 계역사적국면에 대한 반응이 거의 표면화 되지 않았거나 혹은 내면화되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같은 사실은 작가나 시인의 개인적 취미와 창조적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흔히 이해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작가와 독자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사회적 효용의 정당성은 미적효용의 정당성과 무관한 것으로 구분될 성질의 것이 아닌것처럼 보인다. 개인적 취미도 사회적 정당성이나 진실과 위배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렇게 본다면 문학의 사회적 가치와 미적가치 사이에는 사실상 구분이 있을수 없게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시집 “경상도의 가랑잎”에서 박목월의 관심은 사회적 삶의 영역에  
로 확대심화되어간 것 같이 보인다. 그는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  
의 초점을 두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보하는 말투이거나, 겸손한 말씨이거나,  
나, 소박한 말투를 이용하므로 걱정과 직접적진술을 피하고 서정적 승화를  
피하는 특질을 가진듯이 보인다. 이러한 특질은 그의 삶 전체에 번져있는  
인격적 아름다움과도 깊이 관계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生土”와 같은 작  
품에 보이는 시상은 농민일반의 모습이 사실적 박진감으로 표현되고 있으면  
서도 진실의 공감 이외에 격양이나 울분같은 감정의 노출이 전혀 나타나 있  
지않다. 시는 차원 높은 통찰의 소산이기는 하지만 승화의 아름다움을 그  
기능으로 삼음을 이 작품은 잘 말해주는 것 같다.

生土

蔚山接境에서도 迎日에서도

그들을 만났다.

마른 논바닥 같은 얼굴들.

奉化에서도 春陽에서도

그들을 만났다.

億萬年을 산듯한 얼굴들.

人蓼이 名物인 豐基에서도

그들을 만났다.

척척 금이 간 얼굴들.

다만 聞慶 새재들 넘는 길목에서

허죽이 웃는 그 얼굴은  
시벨진 生土 같았다.

“만났다”의 되풀이는 강조의 의미가 숨어 있으면서 일반적 현상이라는 함의가 담긴 말로 볼수 있다. 또 지명을 되풀이 하여 여기 저기를 지시한 것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허다하게 많은 존재들이라는 뜻을 말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마른 논바닥같은 얼굴”이 뜻하는 상징적의미는 우리나라 농민상의 사실적 표현으로서는 더 이상적절한 말이 없을상 싶다. 생산에 평생을 바친 농민들의 모습이 지닌 고난과 인내의 의미를 이보다 더 절실성있게 통찰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같이 보인다.” 억만년을 산듯한 얼굴들”에서도 긴세월의 인내를 읽을 수 있으며, 동시에 농민의 생활사의 의미도 함축시키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장구한 세월에 닳이고 깎인 자의 시간적 의미를 적절하게 말해주고 있다. 나중에 “생토 같았다”와 같은 시상에서 농민의 영원함의 의미가 감동 깊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생산의 영원성이나, 건담의 끈질김이나 삶의 근원적 모체로서의 토지의 함의가 이 시기에 집중화된 것같이 보인다. 여기서 시인은 어느 특정한 시대를 지적하지 않은 대신 농민 일반이 지닌 전체적 의미를 형이상학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령 “罪”같은 작품에서도 삶이 내포하고 있는 옳고 그름의 의미가 구별해 놓는 냉혹한 측면에 대하여 특히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인의 관심의 초점화에서 미루어 볼 때 삶 전체가 감상화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하면서도, 그러나 삶의 근원적 슬픔에 대한 시적통찰을 엿볼 수 있게했다.

#### 罪

너는  
욕에 갇혔고  
나는 雨中에 떠난다.  
어질수록  
영악해야 한다는 교훈을  
너로 말미암아  
나는 배웠다.  
적막하구나.

빛밖에 민산 풀빛이 새로울수록  
 작은 오막살이며  
 낮은 돌담이며  
 산다는 것의 막막함.  
 罪도 적막하고  
 목숨도 적막한  
 사람이어  
 풀잎이어  
 바람만  
 골목 모퉁이를  
 城壁을  
 그리고  
 너의 집 안벽을  
 휘몰아친다.

이 작품에서 볼수 있듯이 인간도 자연도 “적막”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그러한 인식의 근원적 발상이 시인의 내면적 의로움과 직결되어 있으면서도 삶일반이 지닌 슬픔을 일깨우고 있다. 側隱之心은 어진 마음을 소유한자만이 지닌 심정이라고 聖賢은 일컫는바가 있는데, 박목월의 후기의 작품들에서는 이러한 심정적 토로가 많아져 간다. 아마도 세상의 어려움과 많은 체험을 겪은 사람이 스스로 지닌바 삶에대한 연민의 정일 것으로 생각된다. “바람소리”, “殘雪”, “同行”, “二·三日”, “日常事”에 실려있는 시인의 서정은 슬픔으로 가득차있다.

오늘은  
 보은장  
 부엌계 추운 얼굴들이  
 마른 미역오리 명태마리  
 본목뿔을 교환하는  
 가난한 그들의 교역.  
 일어서 애처로운 닭벼살  
 적막하구나.  
 적막하구나.

이작품은 “殘雪”의 일부를 한토막 끊어낸 것이지만 설명의 필요도 없이 세상의 만물이 쓸쓸하고 애처롭게 보이는 시인의 심정이 제시되어 있다. 위

에 적힌 시상은 실상 시골사람의 생활의 일반적인 모습을 요약적으로 보여 주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시상을 통해서 박목월의 시가 성취하고 있는 보편성을 보는 한편, 그의 인간적인 내면도 아울러 짐작할 수 있다. 세상을 객관화하여 이해하려는 것보다 애정어린 눈으로 보려는 태도가 선명하게 나타나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현상이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포착되지 않고 다분히 주관성에 의하여 의미화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그가 보인 보편성의 가치도 엄정하게 다스려진 것이기보다는 일상적인 것이거나 또는 주관적 개입에 의한 것이다. 엄정한 객관에 의한 다스림을 피한 사실은, 비록 세상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아 재고할 여지가 있다. 진정한 사랑은 정당한 분별없이 성취되기는 어렵고, 그것이 결여된 사랑은 오히려 무분별을 조장할 여지도 없지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있음의 방식은 항상 질서적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서적 요구를 도의시한다면 있음의 가치는 흐려지거나 불분명한 것이 될 것이다.

“砂礫質”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 유지되면서도, 그의 내면적 심화는 한층 더하여 시의 경지가 높아지는 것 같이 보인다. “埋沒”같은 작품에서는 그러한 질서와 분별의식이 용해되어버려서 독특한 질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질서는 새로운 통일에 의한 아름다움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결함도 있는 한편, 삶의 현실적 의미의 개입을 받지 않은 이른바 사물자체의 의미가 제시되는 잇점이 있다. 사물 자체의 의미나 아름다움을 말하는 뜻은 인간화된 시선에 의한 편견을 배제한다는 순수 의식과도 관계된다.

#### 埋沒

通禁의 鐵柵 안에서  
눈발 속에 묻혀가는  
것들을 생각한다.

그

아늑한 埋沒과 부드러운  
忘却으로 세계는  
한결 정결해진다.

鐵柵조차 눈에 묻히고  
잠이 든다.

모든 무울의 흰 라인온  
 베일 저편으로  
 몽롱하게 풀리고  
 드디어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침이 열린다.

“통금의 철책”과 같은 매우 차거운 사물을 택한 이유는 아마도 서정적 화자가 대상에 대한 반발적 의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말하자면 인위적인 조직물들이 지닌 비가치적 측면을 일깨우며, 나아가서 자연이 보여주는 보다 크고 보다 위대하고 보다 신비한 가치를 독자의 일상적 의식을 밀어 제치고 그것을 전면으로 내미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간적인 의미를 지니고 인간적인 세계의 일상을 지배하는 사물을 비인간적인 시선으로 재조명하여 독자적인 새 질서와 새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시인의 의식에는 틀림없이 인간적인 세계를 비판하고 있는 안목이 살아있다고 짐작되지만, 그러나 시인은 그 이상 분별과 비판을 발전시키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아늑한 매물과 부드러운/망각으로 세계는/한결 정결 해진다.”와 같은 시상은 자연이라는 의미를 비인간적 질서 의식으로 보여주는 한편 죽음의 의식이 번져있다고 생각된다. 자연의 본성중에서도 생성과 사멸의 양측은 기본적인 것이고 결국은 인간적인 질서도 자연의 보도 큰 질서에 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시사되고 있다.

“限界”, “빈껍”, “兩極”, “틈서리”, “중심에서” 등의 중요한 작품들에서도 그의 깊은 체념과 사물의 본성을 포착한 심상의 제시는 일관되는 것 같다. 그런 한편 기독교의 신앙적 삶의 성찰도 간간히 보인다. “중심에서”와 같은 작품은 작자의 신앙인으로서의 내면적 삶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하는 작품으로 보였다. 고요한 호텔의 분위기가 제시되고 나서, 간간히 열리는 문소리의 영상을 제시한다음, 심정의 정결한 상태를 흰 노트로 대신하는 암시와 함께, 마음의 중심부에서 세례 요한의 純銀의 고리를 단 찢렁찢렁 울리는 지팡이 소리가 도입된다. 이러한 영상중심의 작품에서 작자는 그의 신앙인으로서의 내심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는 서정적 주인공의 눈은 “성애가 녹아 내리는/유리창 밖으로” 들리고, 찬란한 밖의 세상에서

“묵시”를 감각하고 있다. 이 작품에 동원된 호텔과 밖의 세계는 그 자체의 의미는 소멸되고 시인의 내심의 상황을 알려주는 부남만 담당하는 것 같이 보인다. 말하자면 인간적인 것의 의미는 점점 쇠퇴하고 사물의 본성이나 신앙의 의미 또는 깊은 체념으로 시인의 관심은 쏠리고있는 것같이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이 시인이 경험한바 삶 인식의 독자적 경향이며 정신주의적 인 면모를 알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이라는 작품에 제시된 시상을 보면, 허무의식을 내포한 비정한 느낌을 주는 외로움에서 이시인은 냉엄한 고립의식에 빠지고 있음을 드러다볼 수 있다. 이러한 고립의식은 독존적 삶의 자세를 지니기 쉬운 일면을 보이고, 횡적인 인간의식의 결여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찰이 만약에 정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문학은 근원적으로 인간의식의 중대나 그 아름다움을 드높이는 일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해답에 도달할 것 같이 보인다. 즉 문학이 하는 기능은, 세상의 삶의 형태가 인간끼리의 믿음직한 마음의 교류로 이루어지는데 있음을 알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하는 방법이 부정적 언어 문맥을 택할 것이냐 또는 긍정적 태도로 전달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그것을 택하는 시인 자신의 미의식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잠깐”이라는 작품에서도 삶의 소중함을 말하기 보다는 허무한 종말을 각성한 서정적 주체가 훨씬 더 독자의 눈 앞에 나타나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식은 시로 믿으며 사랑하며 바르게 살아가려는 힘과 노력을 크게 의심하는 의미도 내포된 듯이 보인다. 그의 시가 전체적으로 연민과 사랑과 고결한 것에 지향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후기의 허무의식이나 외로움의 의미는 인간불신의 함의를 완전히 배제한것이 아님을 지적할 수있을것 같다.

### 3. 끝 말

박목월 시인의 시적변모 과정을 살피면서, 인간의 내면적 가치 체제의 확립에 드러난 몇 구비의 성장과 옮김의 곡선도, 밖의 세계와 어떻게 얽히고 대응하느냐 하는 태도와 정서적 일관성의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



했다고 생각된다. 이 시인은 분명히 “埋沒”에서 기존적 질서의 부정적 측면을 문제삼고 있으면서, 그 바람직한 인간적인 재성취에는 관심이 적었고, 자연 질서에 마კ임으로서 얻어진 새로운 호기심을 노래한 것 같다. 이러한 의미의 창조 의식은 인간주의적인 성취를 소홀히 할 염려를 지닌다. 그의 독창적 아름다움이 길게 남아 유심자의 심금을 울릴 만큼, 그에게 남겨진 염려의 의미도 또한 오래 남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의 외로움의 미학은 보편적 특질과 함께 개성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 그의 개성적 특질을 받아드리느냐 거부하느냐하는 문제는 독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朴木月：集鹿集. 乙酉文化社. 1946.  
 朴木月：山桃花. 英雄出版社. 1955.  
 朴木月：蘭·其他. 新丘文化社. 1959.  
 朴木月：晴曇. 一潮閣. 1964.  
 朴木月：慶尙道の 가랑잎. 民衆書館. 1968.  
 朴木月：無順. 三中堂. 1976.  
 朴木月：보라빛 素描. 新光出版社. 1958.  
 朴木月：朴木月詩選. 正音社. 1974.  
 金東里：自然의 發見(文學과 人間. 수록). 白民文化社. 1948.  
 金東里：朴木月の 秘密과 強點. 현대문학. 1978. 6월호.  
 徐廷柱：現代朝鮮詩略史(現代朝鮮名詩名詩選 수록). 溫文社. 1950.  
 徐廷柱：韓國의 現代詩. 一志社. 1969.  
 趙芝薰：詩와 人生. 博英社. 1959.  
 金春洙：韓國現代詩形態論. 海東文化社. 1958.  
 金宗吉：詩論. 探求堂. 1965.  
 金宗吉：鄉愁의 美學. 1971. 文學과 知性. 가을호.  
 文德守：朴木月論. 1965. 文學春秋. 6월호.  
 金宇正：朴木月論(集鹿集의 以後, 其他, 수록). 玄岩社. 1968.  
 鄭泰鎔：朴木月論. 1970. 現代文學 5월호.  
 金仁煥：木月の 詩와 自然. 문교부연구보고서. 어문학 5권. 1971.  
 신광희：木月の 詩精神研究. 강암 池憲永先生華甲紀念論叢. 刊行委員會. 1971.

尹在根：木月の 詩世界. 1978. 現代文學. 6월호.

朴斗鎭：韓國現代詩論. 一潮閣, 1977.

朴致遠：朴木月の 山桃花. 詩文學. 1978년 10월호.

心象社：朴木月 特集. 心象. 1978. 4월호.

鄭漢模：現代詩論. 民衆書館. 1973.